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

김선영 · 조혜은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on the satisfaction and self effectiveness with job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

Seon-Yeong Kim · Hye-eun Cho

Dep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ye-eun Cho, Dep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 Yeodai-gil, wangsang-gu, Gwangju, 506-713, Korea, Tel: +82-62-950-3796, +82-10-9660-8303, Fax: +82-62-950-3840, E-mail: cho1995@kwu.ac.kr

Received: 11 August 2015; Revised: 11 October 2015; Accepted: 24 October 2015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in the dental hygienist.

Methods: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June 21 to July 31, 2015. The survey was composed of questions on the subject's general demographical profile, gender role identity,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s a dental hygienist. The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ere done by Kruskal-Wallis test and Bonferroni post hoc test.

Results: 1. The highest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was shown as unclassified (36.6%), bisexuality (27.8%), femininity (19.8%), and masculinity (15.9%).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tisfaction as a dental hygienist and self-efficacy among the group ($p < 0.001$). 3. Both female and male dental hygienists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ith the job performance.

Conclusions: Th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ith the job performance were influenced by gender role identity.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s a dental hygienist, the education for the dental hygienist must include the gender role identity in the future.

Key Words: gender role identity, satisfaction with job performance, self-effectiveness

색인: 성역할정체감, 업무만족도, 자기효능감

서론

현대과학과 의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건강백세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백세의 예찬

은 구강건강의 증진 및 예방이라는 큰 핵심과제를 부각시켰다. 국민의 구강건강의 증진과 예방에 핵심주요 구강보건인력인 치과위생사는 변화하는 치과계의 시장변화, 환자수요의 변화, 업무의 스트레스, 환자와 병원관계자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담감, 진료에 대한 과한 긴장감 등 다양한 요소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잦은 이직과 직무에 대한 직업의식의 저하, 나아가서 전문성 확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윤 등의 연구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고, 강과 권²⁾에서는 직무만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무의 어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pyright © 2015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면 측면에 만족하고 그러한 만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치과위생사 본인에 대한 자기 이해도를 높여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김 등³⁾의 연구에는 최근 성격과 행동유형과 관련하여 개인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 개선 및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행동 및 행동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로 애니어그램이나 MBTI 같은 모델이 사용되어진다고 하였고, 간편하게 행동유형을 설명하는 DISC 행동유형 모델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통계연보⁴⁾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면허등록 치과위생사가 남자는 322명, 여자는 55,750명으로 성비의 차이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 특징을 이해하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새로운 자기이해를 위해 성역할정체감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비롯해 간호사, 미용사, 유치원선생님 등과 같이 여성인력이 대부분 일하는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은 직업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정형화된 틀에 가두어두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남성적인 직업군에는 더욱 남성적인 경향을 기대하고 여성적인 직업군에는 더욱 여성성을 강조하는 직업적 자세와 태도를 강요하는 것이다. 박⁵⁾의 연구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전문직 활동에 제한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에 국한된 직업이라는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업무에 대한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의 이해가 필요하다. 김과 유⁶⁾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없으면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확신감 결여는 업무수행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자기 확신감이나 업무수행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심리이며, 이는 단순히 업무수행 자체의 요인이 아닌 개인의 이해도를 높여 업무수행을 긍정화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약점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자기개발보다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의 이해를 통해 강점업무와 약점업무를 파악하고 강화와 보강을 위한 자기개발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직업만족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복합체적인 과제이므로 단편적인 요소의 접근보다는 다각적인 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6월 21부터 7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총 277부의 설문 중 미흡한 응답의 설문 20부를 제외한 277부의 설문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광주여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승인번호1041485-201506-HR-003-01)을 받아 수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일반적인 특성, 성역할정체감,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업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 성역할정체감은 김⁷⁾의 도구를 사용하여 5점척도로 구성된 남성성 15문항, 여성성 15문항, 중성성 10문항을 조사 후 중앙치분리법(Median Spilt Procedure)을 적용하여 남성성(Masculinity type), 여성성(Feminity type), 양성성(Psychological type), 미분화(Undifferentiated type)로 분류하였다. 이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은 남성성 문항이 0.832, 여성성 문항은 0.807, 중성성 문항은 0.766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심과 황⁸⁾, 정 등⁹⁾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3. 분석방법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분포 및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는 빈도분석을 적용하였고,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는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행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어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test를 실행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post hoc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29

세 미만이 77.1%, 30-39세 미만이 21.6%, 40-49세 미만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2-5년이 44.9%, 6-9년은 21.6%, 1년 미만은 20.7%, 10년 이상은 12.8%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분화는 3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양성성 27.8%, 남성성은 19.8%, 여성성은 15.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이 59.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불만족 34.8%, 보통이 6.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에서 미분화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 30.6%, 남성성 22.4%, 여성성 14.2% 순으로 나

타났다. ‘보통이다’에서는 미분화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28.6%, 양성성 21.4%, 여성성 7.1%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이다’에서는 미분화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 24.1%, 여성성 20.3%, 남성성 13.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직업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외과 치주치치 (Scaling)는 양성성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이 3.56, 남성성이 3.47, 미분화가 3.29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강보건교 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성과 남성성은 3.31, 미분화는 3.08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예방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29, 미분화 3.22, 여성성 3.17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공동진료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47, 미분화 3.29, 여성성 3.2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
Age	20-29	175	77.1
	30-39	49	21.6
	40-49	3	1.3
	≤ 1year	47	20.7
Clinical career	2-5years	102	44.9
	6-9years	49	21.6
	10years≤	29	12.8

Table 2. Gender-role department

Gender-role department	Standard	Total
Psychological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63(27.8)
Fem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36(15.9)
Mascul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45(19.8)
Undifferentiated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83(36.6)

Table 3.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of hygienist

Variable	Category	N	%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134	59.0
	Usually	14	6.2
	Dissatisfaction	79	34.8

Table 4.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by gender-role identity

Unit: N(%)

	Gender-role identity				Total	p-value *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Satisfaction	41(30.6)	19(14.2)	30(22.4)	44(32.8)	134(100.0)	0.372
Usually	3(21.4)	1(7.1)	4(28.6)	6(42.9)	14(100.0)	
Dissatisfaction	19(24.1)	16(20.3)	11(13.9)	33(41.8)	79(100.0)	

*by chi-square test

Table 5.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Self-regulatory efficacy by gender-role identity

Variables	Gender-re identity (Mean±SD)				p-value*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Satisfaction					
NSPT(Scaling)	3.86±0.74 ^a	3.56±0.80 ^{ab}	3.47±0.79 ^{ab}	3.29±0.60 ^{ab}	<0.001
Oral health education	3.70±0.61 ^a	3.31±0.62 ^{bcd}	3.31±0.70 ^{cd}	3.08±0.63 ^d	<0.001
Prevention	3.71±0.66 ^a	3.17±0.70 ^{bcd}	3.29±0.63 ^{cd}	3.22±0.70 ^d	<0.001
Common examination assistance	3.75±0.67 ^a	3.28±0.70 ^{bcd}	3.47±0.79 ^{cd}	3.29±0.60 ^d	<0.001
Clin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52±0.69 ^a	2.92±0.73 ^b	3.20±0.70 ^{ab}	3.04±0.69 ^{bc}	<0.001
Self-regulatory efficacy					
NSPT(Scaling)	4.03±0.80 ^a	3.78±0.76 ^a	3.91±0.67 ^{ac}	3.78±0.74 ^{bd}	<0.001
Oral health education	3.98±0.75 ^a	3.28±0.85 ^b	3.78±0.60 ^{ac}	3.30±0.64 ^{bd}	<0.001
Prevention	3.90±0.73 ^a	3.39±0.80 ^b	3.80±0.55 ^{ab}	3.36±0.58 ^c	<0.001
Common examination assistance	3.84±0.70 ^a	3.39±0.87 ^{ab}	3.80±0.55 ^{ac}	3.35±0.57 ^{bd}	<0.001
Clin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52±0.72 ^a	2.89±0.71 ^b	3.49±0.73 ^a	2.92±0.67 ^{bc}	<0.001

*by Kruskal-Wallis; ^{abcd}Same letters was not significant by Bonferroni post hoc test

였다($p<0.001$). 병원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52, 남성성이 3.20, 미분화 3.04, 여성성 2.92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비외과 치주치치 (Scaling)는 양성성이 4.03으로 가장 높았고, 남성성 3.91, 여성성과 미분화 3.7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78, 미분화 3.30, 여성성 3.2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예방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80, 여성성 3.39, 미분화 3.36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공동진료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이 3.80, 여성성 3.39, 미분화 3.35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병원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52, 남성성이 3.49, 미분화 2.92, 여성성 2.89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업무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5>.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계속구강건강관리, 예방치과치치업무를 수행하거나, 치과진료 협조와 경영관리 지원 등 진료실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업인¹⁰⁾으로 치과계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더불어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요구되어 왔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과 권²⁾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곧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최선의 진료와 환자의 진료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하였고, 박¹¹⁾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료기관 의 능력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직무만족도는 윤 등¹⁾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무만족도는 이러한 업무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비롯하여 치과위생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 및 업무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업무의 만족도에 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

가 필요하다. 이¹²⁾의 연구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행동유형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¹³⁾, 이와 한¹⁴⁾, 이¹⁵⁾, 김 등¹⁶⁾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도는 직업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나 자세로 심리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윤 등¹⁷⁾의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를 개인의 욕구나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직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강과 권²⁾의 연구에서는 직무의 어떤 측면에 만족하고 그러한 만족(또는 불만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심리적인 접근을 통한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진로나 적성에 적용하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자기 진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므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를 선택한 직업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도를 통한 자기 발전 및 직무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여성비율이 현저히 높은 직업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직무만족도나 직무 및 업무에 관하여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높이고, 치과위생사로서 업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확인하여 자신의 강점업무와 약점업무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자기개발에 대한 방향을 갖고 직무에 몰입한다면 나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치과위생사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직업만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29세 미만이 175명(77.1%), 30-39세 미만이 49명(21.6%), 40-49세 미만이 3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2-5년이 102명(44.9%), 6-9년은 49명(21.6%), 1년 미만은 17명(20.7%), 10년 이상은 29명(12.8%)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평균값은 26.6세이고 근무경력은 2-5년 이상이 4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천¹⁸⁾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평균값이 28.79세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연령분포대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한 전체 기간은 5년 이상이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다.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분화는 3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양성성 27.8%, 남성성은 19.8%, 여성성은 15.9% 순으로 나타났다. 287명의 초, 중, 고교 여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한 정¹⁹⁾의 연구의 유형별 분포는 미분화가 34.9%로 가장 많았고, 양성성 31.01%, 여성성 17.77%, 남성성이 16.72%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29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²⁰⁾의 연구의 유형별 분포는 양성성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미분화 31%, 여성성 17.6%, 남성성 15.9% 순으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성비가 높은 직업군일지라도 유형별 분포에서 여성성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

직무 만족도에 관한 천¹⁸⁾의 연구에서 직업만족도 세부 구성요인인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친 일반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은 연령, 현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 근무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에 관하여 선행된 직업관련 특성이 아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은 미분화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 30.6%, 남성성 22.4%, 여성성 14.2%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이 보통인 경우 미분화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28.6%, 양성성 21%, 여성성 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분화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 24.1%, 여성성 20.3%, 남성성 13.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직업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외과 치주치치(Scaling)는 양성성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0, 예방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1, 공동진료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5, 병원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치위생학과를 지망한 면접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 등²¹⁾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는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 모두 진로협조에 대하여 선호하였고 남성성에서는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인 교육내용 및 업무의 이해가 되지 않은 치과위생사 지망생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비외과 치주치치(Scaling)는 양성성이 4.03으로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8, 예방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0, 공동진료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84, 병원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52로 나타나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만족은 직무의 만족과 관련하여 세부요인인 업무의 만족이 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직업적 소명의식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선행된 연구에는 직무의 만족도를 다루어 연구해왔지만 업무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업무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전문훈련 및 역량 개발 등 연수를 통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개인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만족업무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강점업무와 약점업무를 파악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기회를 자기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역할정체감의 이해 자체가 자신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소는 될 수 없으나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을 통한 직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강점 업무는 더욱 강화시키고, 약점업무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독립되거나 분리된 단편적 연구가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의 접근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및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성역할정체감을 통한 업무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여성 직업군인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만족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치과위생사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심리학적 접근법인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를 통해 맞춤형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2015년 6월 21부터 7월 31일 까지 광주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277부의 자료를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알아보고자 Kruskal-wallis test를 실행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면 양성성(65.1%), 여성성(52.8%), 남성성(66.7%), 미분화(53.0%) 모두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외과 치주치치(Scaling)는 양성성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이 3.56, 남성성이 3.47, 미분화가 3.29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비외과 치주치치(Scaling)는 양성성이 4.03으로 가장 높았고, 남성성 3.91, 여성성과 미분화 3.7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5.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78, 미분화 3.30, 여성성 3.2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6.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연구결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역할정체감을 통해 개인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강점업무와 약점업무의 파악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연수에 활용하고 치과위생사의 잦은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속적인 성정체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1. Youn HJ, Park YN, Ha M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in Gwangju. J Korean Soc Dent Hyg 2009; 9(4): 699-714.
2. Kang HK, Kwun HS.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dental hygienists' career in Busa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9; 9(3): 507-21.
3. Kim SD, Kim S, Kim IG. Differences in sport instructors'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DISC behavior. Korean J Sport Management 2008; 13(3): 75-89.
4. Ministry of healthcare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MOHW. License information system of MOHW. Division of Healthcare Resources Policy; 2014.
5. Park JM, Lee SJ. Comparison of Gender Stereotype between Female Nurs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Nurs 2009; 20(4): 412-20.
6. Kim KS, YU MS.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 practice Performance as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04; 4(3): 111-5.
7. Kim YH. Development of korean sex-role inventory. J Asia Women 1988; 27: 153-82.
8. Sim SH, Hwang YS. A study on the job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and their job performance.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7; 7(2): 153-66.
9. Chung WG, Son AR, Jung HR, Kim JY, Ha JE, Heo SH, Kim NH. Cognition and perception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6; 6(4): 403-17.
10.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Reports on the extension of the dental hygienists description.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04.

11. Park S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haracteristics ro job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8; 8(1): 45-57.
12. Lee SS. Relationship of DISC behavioral type to job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4): 793-800.
13. Lee S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4): 532-42. <http://dx.doi.org/10.13065/iksdh.2013.13.4.535>.
14. Lee SJ, Han GS.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 36(3): 238-48.
15. Lee JY.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ism. J Dent Hyg Sci 2011; 11(6): 573-81.
16. Kim CH, Lee HO, Lee SM. Clinical dental hygienist's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J Dent Hyg Sci 2011; 11(4): 345-52.
17. Yoon MS, Lee KH, Choi MS. A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06; 6(3): 147-52.
18. Cheon HW. A research on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an area in Jeollabuk-do.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9; 9(3): 329-43.
19. Jung YO. A analystic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teacher's gender-role identity and job stress. Journal of women resources development 2007; 9: 109-31.
20. Lee C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identity and job-stress of female nurs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Dong guk, 2013.
21. Kim SY, Kim YJ, Moon SE. Study on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on choice of dental hygiene major and professionalism. J Korean Soc Dent Hyg 2015; 5(2): 295-301.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2.295>.